**행0505 Note**

**◆이정표: 지연된 심판- 존 비비어, 여호와를 경외하라 p 123**

엘리의 아들들의 죄를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하나님 앞에 모독적인 불을 바쳤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와 비교해 보라,

왜 엘리의 아들들은 그렇게 빨리 죽음으로 심판 받지 않았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들은 성막에서 죽음과 같은 즉각적인 심판을 받지 않았던 것일까?

그 대답은 삼상0301에서 찾을 수 있다.

삼상0301. 그리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리고 당시의 날들에 여호와의 말씀이 귀하였느니라(야카르:가치있는,뛰어난,밝음,정한,값비싼,뛰어난,살진,존경할 만한,귀한,명성), 아무런 열린(파라쯔:터치고 나오다,사방으로,파기하다,깨뜨리다,부숴버리다,갑자기 일어나다,분쇄하다,터져 나오다,사방으로 널리 퍼지다,퍼뜨리다,자라다,증가하다,열다,누르다,흩어지다) 환상[하존: 보는 것,꿈,계시,신탁,이상(異常)]이 없었느니라.

삼상0302.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것이 일어나니라 곧, 엘리가 그의 자리에 누워 있었을 때에, 그의 눈들이 점점 침침하게 되기 시작해서, 그가 볼 수 없었느니라.

삼상0303. 그리고 하나님의 등잔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꺼지기 전이었느니라, 그리고 사무엘은 잠자기 위해 누웠느니라.

말씀이 희귀한 곳에는 임재도 희귀하다,

아론의 두 아들의 경우에는 영광이 막 계시되었고 강력했다.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매우 강렬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거의 장님이 된 지도력의 어둠과 꺼져가는 등불

이 던지는 그림자 속에 가리워져 있었다, 하나님의 등불은 거의 꺼져 있었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그분의 영광은 이미 옮겨졌었다,

즉각적인 심판은 오직 그분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만 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심판은 즉시로 오지 않고 연기되었던 것이다.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클수록, 불경건에 대한 심판도 더 엄하고 신속하다.

언제든지 죄가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에 들어올 때는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진다.

Ω딤전0524.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사전에 열려, 앞장서서 심판에로 나아가느니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이 뒤따라가느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불손한 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한 불빛 앞에 드러났으므로 즉각적인 심판을 받았다,

사람들은 아나니아의 죄보다 훨씬 더한 죄를 짓고도 무사히 넘어가는 것을 보고, 심판이 단지 지연된 것을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자위한다.

오늘날 심판은 연기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도 아무런 명백한 심판이 없이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심판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말한다.

전0811. 비록 죄인이 백번 악을 행하고, 또 그의 날들이 연장될지라도, 악한 일에 대한 선고(宣告)가 신속하게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는데서 그들 가운데에 충분하게 세워져 있느니라(말레: 채우다,충만하다,성취하다,확인하다,봉헌하다,끝나다,기간이 끝나다,울타리로 막히다,완성하다,가득해지다,흘러넘치다,공급하다,함께 모이다,다시 채우다,만족시키다,세우다).

심판은 연기된 것이지 없어진 것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심판의 연기를 심판의 부재로 착각하고 있다.

약0509. 형제들아, 서로를 거슬러 불평하지 (스테나조:탄식하다,묵도하다,중얼거리다,슬픔으로 신음하다,불평하다) 말라, 너희가 유죄판결 받지(크리노: 구별하다,결정하다,언도하다,벌하다,결말짓다,비난하다,판결하다,고소하다,심문하다,재판) 않을까 함이니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서 계시느니라.

Ω히0927. 그리고 사람들에게 한번 죽는 것이, 그후에는 심판이 지정되어(아포케이마이:보존되다,기다리다,지정되다,쌓아두다) 있는 것과 같이,

고후0510. 이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 자리 앞에 반드시 나타나야 함이니, 그래서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가 행하였던 것에 따라, 낱낱의 자가 그의 몸 안에서 행해진 것들을 받을 것이니라.